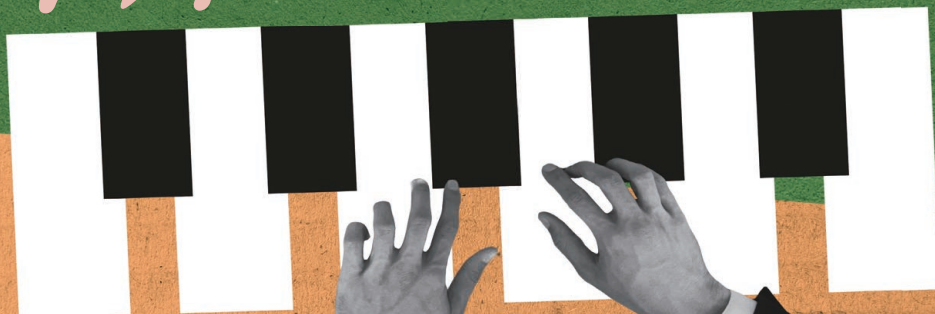


음향인과 음악인으로서의 삶

한승열 MBC 제작기술부 부장

MUSIC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 존 맥스웰 -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꿈이 있다. 그 꿈은 자신의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일 것이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여지가 있기에 삶은 아직도 살만한 건지도 모른다.

나는 현재 MBC에서 TV프로그램의 음향제작 감독을 맡고 있고, 별도로 <이야기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프로듀서 겸 작곡, 작사, 가수로서의 음악 활동도 겸하고 있다. 우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잠깐 나의 어릴 적 과거를 돌아보면, 집에서 ‘TV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TV 보는 것을 무척 좋아했었는데, 그게 내 밥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대학 시절에는 교내 기술고시원에서 고시 준비를 하는 중에 스타크래프트 게임 멤버들과 PC방에서 종종 게임 약속을 잡았었다. 그런데 하루는 두 명의 동료가 PC 앞에서 MBC 공채 입사 신청하는 것을 보고 얼떨결에 나도 같이 지원했다가 덜컥 붙게 된 것이다. (참고로 나머지 두 동료는 현재 고위급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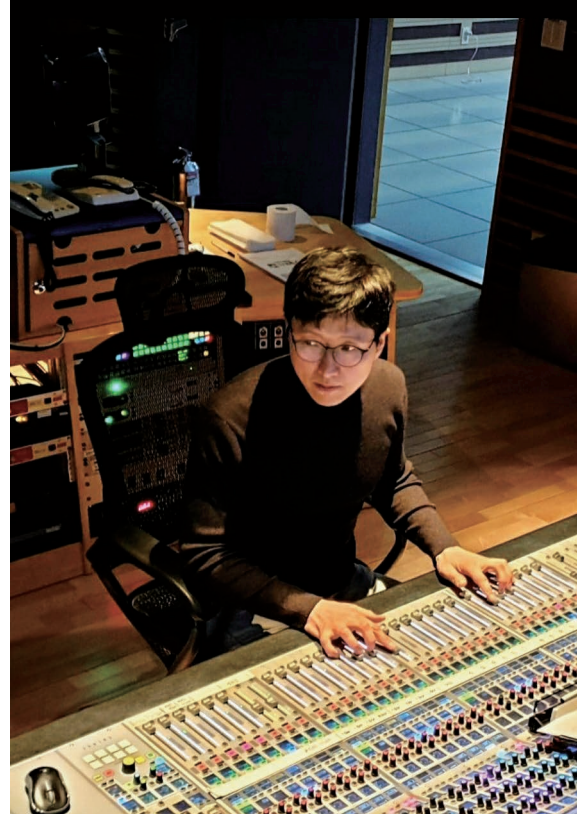
이렇게 해서 2001년 나는 MBC에 입사하게 되었고, TV송출부, 라디오기술부, 보도기술부, 기술관리부, 사업부 등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신입 시절 회사 선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방송의 전반적인 다양한 경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부서에서 너만의 전문성을 키울 것인가?
그건 너의 선택에 달려있어..”

나는 첫 번째 선택을 한 것이다.

나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재미가 더 컸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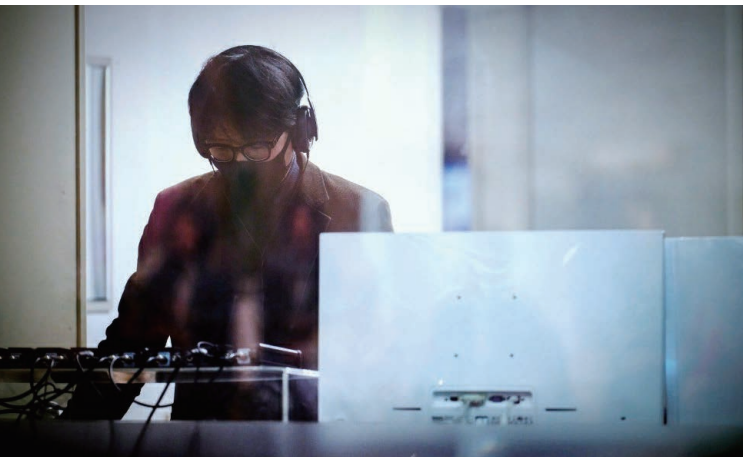


“인생의 길은 선택과 우연의 연속이다.
어떤 결정과 기회를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은
그때마다 달라진다.”

여러 부서 가운데 지금의 나의 꿈을 갖게 해준 두 곳의 부서가 있다.

첫 번째는 2010년 사업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MBC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예능국에서 기획할 당시에 나는 담당자였던 김 모 PD에게 음원 제작에 관한 기획서를 장문의 이메일로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사업 프로듀서로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방송 날짜에 맞춰서 음원 제작을 릴리스하는 일이 매일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무척 힘든 작업이었다. 일단 참여 가수들과 소속사 대표들과의 조율이 필요했고, 원곡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직접 저작권을 해결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걸 괜히 제안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런 사고생을 다 하나 싶었지만, 돌이켜 보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예를 들어 당시 참여했던 가수들과 연주자들, 음악감독, 그리고 해당 원곡의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들의 인맥을 확보하게 되었고, 더불어 음악 제작에 관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경험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2012년 라디오기술부로 발령이 나면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개인 발령이어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라디오 음향감독 일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이 익숙해지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 있던 ‘그랜드 피아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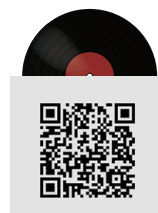
멋진 그랜드 피아노였다. 아주 어릴 적 바이엘 두 달 배우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멋진 피아노를 보니 왠지 피아노를 잘 쳐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양 손가락 연습부터 시작해서 도미솔... 코드를 독학으로 연습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손가락은 어느덧 피아노 건반에 조금씩 길들어졌고, 이제 나도 <나는 가수다>의 음악 연주자들과 가수들처럼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노래할 정도까지는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조금씩 꾸준히 연습했고, 더 나아가 내 노래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생긴 것이다. 지금은 의지만 있다면 유튜브에서 웬만한 교육들을 무료로

배울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주로 책이나 오프라인 강의로 배울 수밖에 없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학원에 다닌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작곡 책과 미디 책들을 닦치는 대로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우연한 기회에 라디오 프로

그램의 로고송을 직접 만들어서 방송에 고정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2018년, 3곡으로 구성된 나의 첫 앨범 <이야기프로젝트 - 그 첫 번째 이야기>을 발매하게 된 것이다.



[1집 타이틀 곡]
‘너의 목소리’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었다. 회사 휴일에는 학교에서 온종일 음악이론과 실습지도로 인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나기도 했지만, 훗날 돌이켜 보면 그때가 나에게 있어 크나큰 성장을 안겨준 시기였던 것 같다. 역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재미난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리다면,

내가 이렇게 취미로서 음악 공부를 시작한 것은 ‘40대’부터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이야기는 내가 최근 10년 동안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노력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죄송하지만, 재미없는 수학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 30분만 내 발전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루 24시간은 1,440분(24시간 × 60분)이므로, 하루 24시간 중 30분은 대략 2.1%에 불과하다.



<새벽다방 로고송>
‘조금 더 가까이’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이 '30분'이란 시간을 매일 꾸준히 투자해서 1년이 지난다면 그 능력치는 어떻게 될까?

$$(1+0.021)^{365} \approx 1970$$

즉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1년이 지나도 그냥 1이 되지만, 2.1%라는 아주 적은 노력으로 인해 1년 뒤의 능력치는 거의 2천 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언가를 잘할 자신이 없다면 꾸준히 하는 것도 나름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 때로는 꾸준함이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소질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강조한다.

여러분 중에 음악에 대한 꿈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란다. 나도 인간이다. 50대인 나도 하는데...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나 역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빠를수록 좋다. 그렇다고 늦은 것도 나쁠 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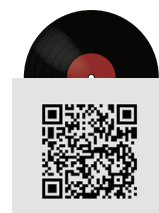
꼭 음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꿈을 위해서 하루 2.1%만 노력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린다.

시작과 꾸준함이 중요하다.

나는 작년 가을에 <이야기프로젝트> 두 번째 싱글앨범을 발표했고, 다가올 겨울에 발표할 세 번째 앨범을 위해 지금도 조금씩 준비 중이다. 나는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가늘고 길게 갈 생각이다. 매일 2.1%씩...

누군가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무지개를 원한다면, 비를 참아야 한다.” 



[2집 싱글]
'나만 아픈 사랑'

